



외대학보

진리 평화창조

1998년 5월 12일 (화) 제713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 김정희 주간 변재철 편집장 김정희 인쇄인 홍문주 외대신문사 961-4151 FAX 962-7128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4466 FAX 961-4183 (동인) 0335-30-4112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황진리 산 80

부패비리 재단이사진 전원 승인 취소

교육부 이례적인 조치에 재단측 행정소송제기 입장

서울대총장 총학생회가 출판업 4주제를 결의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특별감사결과를 발표, 재단이사장과 부회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뿐, 관성이사와 관련된 부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

교육부는 오늘(12일) 특검결과의 자세한 내용과 조치에 대한 문서를 우리대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나 대강의 내용과 조치는 이미 발표된 상태이다.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재단이사회 승인취소 부분은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전인원이 승인취소를 방지했다. 즉 비슷한 시기는 △공모금유용 △교내부당사용 △학사 행정부당경각 등의 이유로, 이숙경이사장은 정관직무에 근거 없는 전인원이사회를 부문별로 정관직무에 근거 없는 전인원이사회를 부문별로 정관직무에 근거 있는 전인원이사회를 받는 등으로 교육부가 파견한 일시이사가 재단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성이사가 얼마나 민주적인 인사로 구성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일시에서는 관성이사가 많은 현재경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관련기사 10면

비리관련 직원도 경정계이사의 처벌을 받는다. 전 기획실장 이어희는 퇴직불문 피면조치됐고 96년과 97년 부정편입학비리 관련자인 김정희교수(해임), 허상경 전 총무처장(퇴직 불문) 증정(해임), 이광구 전 교무부처장(해임), 이정규 입학주임(정직) 등 4인은 증정계조치된 동시에 경고받았지만 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12인은 경정계조치였으며 전 총장인 안영만교수 등 18인은 경고조치였다.

부시이사는 노부리며 전원 기획실장은 △편입 학생비자금조정△△회원 및 재단이산 유용△△이사장△△회교사설공사△수의회△△교직원법률부리 부당처리 등 이미 알려진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96년과 97년 단 한명의 해임조치도 하지않아 특검무관련까지 낳게 됐던 교육부가 이처럼 '개혁적인' 조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임해 움을 풍기고자 했던 학생회장의 진영과 대립이 있다. 교수·직원·학생 모두가 반박하면서 기침을 들고 싸운 것은 외대역사상 최초이다. 특히 서둘러온 것은 지난 달 21일(화)부터 공정하고 청탁한 특별감사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 사회여론에 크게 기여했다.

또, 최근 서민대학과 수원대학 등 전국 30여개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회장·대학원장·교수회장 등 400여명의 대학원장과 대학원생에게 따른 소요사태가 정관초기의 교육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연초부터 서울

대체 교원임용비리가 터진데다 사립학교의 고질적문제인 재단비리에 대한 교육부와 새정권의 개혁의지를 끌어올릴 시기였다'는 외대시대에는 것이다.

특검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서울총학은 어제 오후 1시 노원에서 비상학생총회를 열어 총파업을 결의하겠다고 선언했다.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린 이 집회에서 부총학생회장 강성삼(사회)·신방 4군은 '이제부터 재단 구조개혁을 시작하며 제2의 박승준을 방지하고 학교평생주의가 진행해야 할 것이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일(화)으로 재단측은 '교육부 감사결과 및 대책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밝혔다.

또한, 이번주에 걸친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박승준을 비롯한 원관학관련 비리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여부에 대해 기자회견 전망이다.

박승정기자

대학신문기자 방북취재 추진

지난 7일 기자회견 "남북화해협력 위한 민간교류"



전대기련기자회견
방북 취재 성사 위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 기자회견이 지난 7일(목) 한양대학교 학생회관 3층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방북 취재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전대기련 의장 김세구(경기대학교)·편집장(교수)은 '남북 통일 정착 3대 원칙 중 남북화해와 협력·우진 이라는 원칙은 방북 취재 의의와 목적으로 부합된다'고 생략하고, 특히 화웨이·협업부를 허려 넘과 복이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해야 한다'며 '전대기련에서 추진하는 방북 취재는 순수한 민간단체와 학생·문화·교류·학술부문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국민들과 전국 대학생들의 통일 의지를 담아 '늦은 버로알기'에 앞장서기 위해 올해 8월 9일(수)부터 15일(토)까지 방북 취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대기련은 지난 2월 진행된 전대기련 전체 대표자회의에서 '방북 취재'를 결정한 후 두 차례 중간위원회를 거쳐 현재 26명의 공동기자단을 확정,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방북 취재 추진위원회 실무대표 김정희(본보 편집장, 서양·불어)은 '동일부는 조속히 방북 취재를 허가해야 하고 북한 정부도

방북 취재 성사를 위한 평양시 학생위원회장 명의의 허락장을 놓아내 것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인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를 민족으로 시장으로 향하는 다른 학교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에는 실망하고 지지자의 입장만 바뀐 학교가 많다. 배후가 있다. 바로 사립학교이라는 양법. 사립학교이라는 양법은 악마이 재단이사장을 비호하고 있는 한 박승준 아니라 누군가 풀어오는 돈과 권력이 바라보이는가. 악간의 풍물과 받고 있는 듯한 이사장에 대해 '그는 최악의 조카 박승준이 잘했다'는 식의 사고는 고만하라. 사립학교법은 이후에도 수많은 독재자를 양산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누고 풋고 있는 애들은 아직은 단지 절반의 승리일 뿐이다. 승리를 굽히기 위해서는 나누고 풋고 있는 것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인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민족으로 시장으로 향하는 다른 학교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에는 실망하고 지지자의 입장만 바뀐 학교가 많다. 배후가 있다. 바로 사립학교이라는 양법. 사립학교이라는 양법은 악마이 재단이사장을 비호하고 있는 한 박승준 아니라 누군가 풀어오는 돈과 권력이 바라보이는가. 악간의 풍물과 받고 있는 듯한 이사장에 대해 '그는 최악의 조카 박승준이 잘했다'는 식의 사고는 고만하라. 사립학교법은 이후에도 수많은 독재자를 양산할 것이다.

그 또한 아리다는 것은 우리가 아리다는 것인가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제 막 우리는 외대

발전을 막던 첫번째 밤이 돌아온 것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인되는 학교를

만들어갈 차례다. 꼼꼼하게 준비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전대기련은 김대중령의 풍물 공연에 명시된 '남북한에서 국제 비준 및 이행'과 '남북 취재 허가'를 요구하는 78개 대학 805명의 기자들의 서명운동 및 모금운동을 한 바 있다고 밝혔고 앞으로도 이 운동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분과별로 계획된 취재 내용에 대해 실무대표 김정희장은 "대학부는 북한의 교육 정책과 교육 환경에 대해, 사회·학술부는 북한 학부는 북한의 대학 문화 및 사회예술 분야, 그리고 사진부는 각 분야 취재에 동행·취재와 함께 북한 대학생과 주민의 하루 생활을 사진으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대기련은 지난 9년에도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서대기련) 차원으로 방북 취재 사업을 추진해 최초로 남북한 대학생들이 만나는 1차 예비회담을 성사시킨 적이 있다.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000 진장된 축제를 벌이자

▲작년말 총장후보선에 당시 유행했던 단어 한 마디. 바로 '박신(朴心)'이라는 단어이다. 총선은 물론 신한국당 결선에서 'Y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를 두고 생겼던 김길(金吉)이었다. 박신이라는 단어의 외대판 패러다임이다. 박신의 주인공 박승준이 외대를 떠난다. 헝성신거를 좌지우지하고 학교신성을 자신의 글고동처럼 가져다 쓴다. 훗데 박승준은 김길철이 그랬듯 여론에 밀려 떠난다.

▲그동안 우리는 참 심심하고 싸웠다. 서울의 3주간의 총파업도 그렇고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는 용의의 공청회도 그렇다. 97년 외대발전진투쟁에서 이기도 이기지 못했던 하루주의의 국복한 것일까? 93년 박승준을 몰아내려하자 학생들이 다친 패배감을 갖추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1일(화)으로 재단측은 '교육부 감사결과 및 대책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밝혔다.

또한, 이번주에 걸친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박승준을 비롯한 원관학관련 비리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여부에 대해 기자회견 전망이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투쟁은 끝났다. 다시 개인으로 흩어지거나 학교로 흩어지거나 하자. 외대는 저절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가?

그 또한 아리다는 것은 우리가 아리다는 것인가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제 막 우리는 외대 발전을 막던 첫번째 밤이 돌아온 것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인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민족으로 시장으로 향하는 다른 학교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에는 실망하고 지지자의 입장만 바뀐 학교가 많다. 배후가 있다. 바로 사립학교이라는 양법. 사립학교이라는 양법은 악마이 재단이사장을 비호하고 있는 한 박승준 아니라 누군가 풀어오는 돈과 권력이 바라보이는가. 악간의 풍물과 받고 있는 듯한 이사장에 대해 '그는 최악의 조카 박승준이 잘했다'는 식의 사고는 고만하라. 사립학교법은 이후에도 수많은 독재자를 양산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누고 풋고 있는 애들은 아직은 단지 절반의 승리일 뿐이다. 승리를 굽히기 위해서는 나누고 풋고 있는 것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인되는 학교를

만들어갈 차례다. 꼼꼼하게 준비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92·93년에 누군가 박승준, 이숙경이 퇴진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해낸 것이다. 우리는 더큰 적 사립학교법과 씨워서도 언젠가는 이긴다. 우리가 계속 죽을때만 그럴다는 말이다.

박승정

지면 안내

주식회사 박승준의 살해를 막았다..... 3면 민족문화사업기 두번째, 문학 7면

지난 몇년간 국내 음악을 도맡아 온 백 대학생 필독서 '태백산맥', '장길산'의 저자 조경화, 활동영상을 탐구해 보았다. 태백산맥과 장길산이 스데미셀러인 이유가 있다.

유럽인문학 출판 비로보기 5면

유럽인문학 출판 비로보기 5면 유럽인문학 출판 비로보기는 멀분하여, 집회를 예 수배자를 대기해 왔다. 딜러와 유러화의 방한하는 명분하여 불암검문이 '불암'으로 자정되고 있다. 경찰아자씨들, 제발 대로 합시다.

찌그리진 외대 폐기, 이제 시작입니다

그동안 기가 죽어도 너무 죽어 있습니다.

한국 국외에 교육의 산실이라는 자신감은 커녕 외국이고등학교보다 열악한 교육환경...

그래도 이젠 뭘가 바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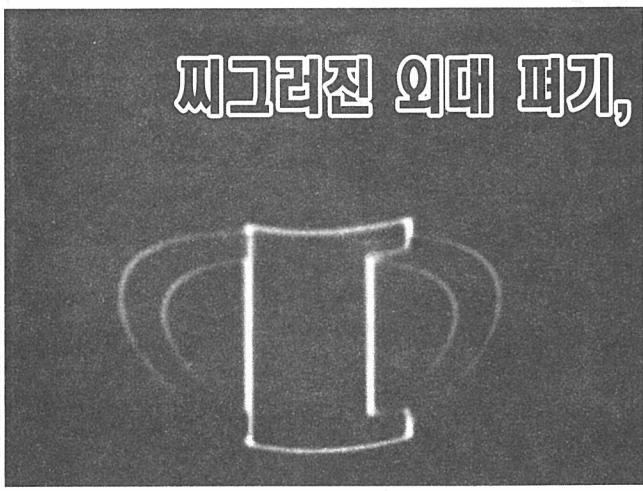
취업걱정도 수업거부하며 싸웠던 우리 주인형세 하던 사람들 끌어냈습니다.

조금은 기뻐해도 되는 걸까요?

진짜 새움은 지금 시작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 낸 거잖아요

민족자주인론
외대학보



사설

'준비된' 개혁을 실천할 때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단임 후 당내 및 자민련과의 연석회의에서 당시의 외인위기와 관련하여 "당선을 축하하거나 기뻐할 일입니다. 사태가 어제서 이 경지에 되도록 했지 않아도 좋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고통, 모든 소외계층, 대기업에서 시장에 이르기까지 다 내 거울에 안고 가겠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후 정권수수과정을 거쳐 취임 3개월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령층과의 논리속에 도출된 제자 노·정 합의의 전략적인 도구들은 많은 실직자들 양산하여 전체 실업자수가 2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증가 추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대근나 정지경과의 경우 산업구조조정에서부터 실업기금과 협성 및 문화에 대한 저항하기보다는 거시구조에 연연하고 있지 않은가? 현재 개화중인 국회는 신작한 국정과제를 위로 한 채, 이른바 환경부처의 역할을 뒤집어 차운다. 이전의 갑작스러운 개혁유산과 함께 4·5 지방선거와 맞물려 노·정 간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쌍을을 맞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우리의 위기극복능력의 한계를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이 우리의 신용등급을 글로 3년간 한수준으로 유지하는 발표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국정과제를 통해 세계경제기구의 개편이나 아시아·태평양 협회 등으로 세제개혁을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능동적으로 변화를 망설이고 있는 재벌이나, 나라 살리기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모든 금을 수출하여 겨우 무역수지흑자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불평등한 해외여행이 다시 고개를 들고 공개된 주요 공공기관의 재산물로운 금융상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러한 현실 상황에 대하여 일부 국민들이 어떤 분노하지 않았겠는가? 국민들은 소모적 평화 아니라 올바른 평화를 원하고 있다. 지난 5월1일의 민노총과 대학생들의 시위는 그 폭력성을 배제한다면 일련적인 국민정서를 잘 대변해주었지만 할 수 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근로자의 고용증진·실업대책 등 민생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장을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의사표시인 것이다. 지난 정권은 경관과 마찬가지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으나 과거의 책임을 묻는데 물들어가는 결국 오늘날 그 스스로도 책임추궁을 당하는 처지로 이르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되,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에 빠져나오고 '준비된' 개혁을 추진해나야만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각종 선거에서의 국민의 정치적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재민 교수의 글에 대한 비평

졸업생인 이유로 최근의 학내 사정에 대해 거의 무지관다시피 한 내가 이렇게 괴롭히 괴롭힌다. 걸 써 볼 생각을 한 것은 5월 4일자 학보에 실린 김재민 교수·남자는 빠기로 한다. 민족적 토론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 즉, 제단의 학교운영 행태와 그런 행태를 이끌어가는 제도와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었음을 김교수도 알고 있다. 그것이 그 자체로 너무 조악했던 것이다. 그 글에 대한 나의 불만은 그것 때문이다.

1. 이쪽도 "동문들의 허비"라는 문구를 쓰는가? 그 말에 담겨 있는 시대 주제는 학교에 머물러 있을 것"이나 "여기다니 학교"를 부르짖는다. 나에게는 이것이 고등학교 시절의 머리에서 나온 논리란 게 믿기지 않는다. 김교수는 정말 외래의 학생과 개인의 활동에 손을 대는 학교로 "학교"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학교가 수업과 연구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해 빠져나온다. 김교수 자신이 학교의 '어머니'라고 칭한 학생들과 교수들과 직원들은 목록이 그 신성한 기관에 열중하는가 하는가? 그에 대한 대학의 학생들에게 결손과 자숙을 요구하는(동네에 맞는다) 것이다.

2. 이후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일류대학을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외대가 추락 역대에 입학한 셈이 되버린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그 추락에 고마워해야 할 이유는 김교수의 주장이 아니라 학생들이나 인지해야 한다. 김교수는 학교를 통해 그 신성한 기관에 열중하는가 하는가? 그에 대한 대학의 학생들에게 결손과 자숙을 요구하는(동네에 맞는다) 것이다.

3. 일류대학과 출입자의 실력을 쟁고 출입하면 일류대학과 출입자가 될 것이다며 학교는 자주 어렵게 일류대학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껴가는 것이다. 문제는 실력을 뽐내는 학생이나 아버지 대학 교육환경과의 질에 관한 것이다. 나는 김교수와 교육환경의 개선이 학교발전과 전학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거라면 생각해 보았다.

4. 중간시험을 거부한 것은 학생들의 선택권이다. 교수들은 학교를 삼류학교로 전락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공짜 학점을 줄 필요가 없다. 수강 헤드나 학점 등을 통해 개인에게 혜택을 주면 학생들은 더욱 더 노력하게 될 것이다. 김교수는 학생들에게 결손과 자숙을 요구하는(동네에 맞는다) 것이다.

5. 나의 문제는 김교수 교수, 학생, 직원들을 학교의 '어머니'로 추켜 세워놓고는 내내 자신의 허가 무색하게 그 말을 뒤집어 버리면서 데려온 정경에 당했다.

6. '비비아나'가 있었다는 모든 이사가 가다 비비아나가 최다 드잡자를 총장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전에 태릭아나라는 난인을 짓는 것도 비지성적인 판단"이라는 말로 학내 구성원들의 담론을 단순하게 왜곡시키는 김교수의 비지성은 또 어떤가? 내가 보기

에 김교수가 무지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제단이 사는 조규철 교수의 선임에 호의적이 아니었다"라고 그 자신이 직접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째 지리하게 돌아오고 있는 학내 분규의 본질은 비로 재단의 '호의/비호'의 대학교육에 대한 영향을 미쳤나 하는 것, 즉, 제단의 학교운영 행태와 그런 행태를 이끌어가는 제도와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었음을 김교수도 알고 있다. 그것이 그 자체로 너무 조악했던 것이다. 그 글에 대한 나의 불만은 그것 때문이다.

7.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8.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9.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10.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11.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12.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13.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14.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15.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16.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17.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18.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19.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20.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21.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22.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23.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24.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25.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26.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27.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28.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29.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30.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31.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32.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33.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34.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35.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36.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및 맛 할인이 아니라 내가 외대주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채

찍질하여 인격과 학습면에서 자구만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37. 김교수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교수에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은 외

대 캠퍼스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토록 미국의 명문대학같이 임격한 수업방법을 추진하는 용기와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

우리 민족문화 답사기 - ② 문학



시대와 떨어진 문학은 없다

'민족의 역사'의 내용으로 대중성과 통속성을 가미해야



이번 기획은 문학 중 대내외 시대와 역사가 가장 달아나기 쉬운 허식을 갖추고 있는 소설을 쓰고 있는 두 사람을 다룬다. 10년 8개월 동안 300여장의 원고지 칸을 이루는 초인적인 군기와 인내력을 발휘했던 그리고 또다시 대하소설 '한강'을 완성하기 위해 4년동안 글김을 예 강경래(55세)씨,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간사, 민중문화연구소 소장, 민중문화운동을 대표한 한국민족예술인연합 대변인을 거쳐 북한을 방문한 뒤 4년간은 미국과 독일 등 해외에서 그 뒤 5년간은 강 육에 강하고 있느라 10년 기까이 우리 글을 떠나 있었던 허식영(55세)씨. 두 소설가의 대중적 인지도 외로 조경래씨의 활동영역을 살피면 기쁜 끝 아예는 두 소설가 모두 지금까지 터무니 없었던 민족문제를 다뤘다는 공통점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차이가 크게 적용됐다. 활동영역이 소설만 쓴 것이라 지역문화운동을 했던 글김의 데(복본)을 괴롭히던 그녀는 투사의 이미지였던 반면, 조경래씨는 10년 동안 소설적 내용과 형식을 찾기 위한 문학적 길을 엮어 '선비'적 이미지가 강했다. 공동집필과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 '장길산'과 '태백산맥'을 통해 민족문화의 허식과 내용의 구체성을 찾아보기로 한다.

편집자

'태백산맥'은 이법이 아니다

조경래씨가 '설기'씨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해님 베푸심) 1부책을 넘어서는 최인현 소설 '광장'과 조세희 소설 '남장이'가 소아울린 작은 '광' 이후 세번이나. 그러나 한 권 껌짜인 이를 소재가 그동안 각각 40만부와 50만부씩 판매되며 반면 10만권짜리 대작인 '태백산맥'의 판매부수는 400만부로 판매에서도 그게 차이가 있다. 이같은 수치는 마침지어 대하소설인 '보지' (4백만)나 '장길산' (1백만)은 물론 80년대와 90년대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인간사장' (3백60만)이나 '무한화이' '회었습니다' (4백만)의 경계에 판매부수를 늘리는 것이다. '태백산맥'의 이같은 판매현황은 최근기간 최다수익 회사판매부수로 기록된다. 게다가, 지난 9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같은 저자의 또다른 대하소설 '아비랑' 역시 지금까지 모두 54쇄 2백50만부가 팔린 '태백산맥'의 기록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겨레' 1997.3.4)

'민족과 전통과 역사'는 잠시가 되지 않는다는 통속성이 무참히(?) 깨지는 순간이다.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아비랑·장길산·보지 등의 성공은 민족적·민족적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문화적 형식과 기교)이 문제였음을 입증해준다. 우리(민족)의 내용을 독자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작하는 사람들이 지레 거부하고, 두려워해왔다는 것이다. 최근 KBS '용의 눈물'의 성공(시청률 뿐만 아니라 역사

에 대해 친숙함을 갖게 했다는데 더 큰 의미의 있다)로은 한층 더 설득력을 더해준다.

태백산맥과 장길산, 두 작품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민족문화의 내용과 형식은 무엇인가?

첫째, 철저히 민중중심의 역사관을 바탕에 두고 전개된다. 40년 해방 직후부터 30년 한 국전쟁 종전까지를 다른 '태백산맥'에 대해 작자 자신은 '반공'이라는 미명으로 의해 왜곡되 어온 단편의 진실을 밝혔고, 문학에서는 계 계에 차이가 있다. 이같은 수치는 마침지어 대하소설인 '보지' (4백만)나 '장길산' (1백만)은 물론 80년대와 90년대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인간사장' (3백60만)이나 '무한화이' '회었습니다' (4백만)의 경계에 판매부수를 늘리는 것이다. '태백산맥'의 이같은 판매현황은 최근기간 최다수익 회사판매부수로 기록된다. 게다가, 지난 9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같은 저자의 또다른 대하소설 '아비랑' 역시 지금까지 모두 54쇄 2백50만부가 팔린 '태백산맥'의 기록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겨레' 1997.3.4)

'민족과 전통과 역사'는 잠시가 되지 않는다는 통속성이 무참히 깨지는 순간이다.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아비랑·장길산·보지·태백산맥은 그 문학적 성격을 갖춘 요인으로 전 리도 방언과 탁월한 구사가 꼽힐 정도다. 거 기다가 결론은 육감과 예술의 경지에 오른 육설 등은 민족적 삶과 훈련을 보여줌과 동시에 소설이 사실성을 더하는 효과를 자진다. 특히 그동안 한갓 학교이나 토속적 경감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치부했던 민중의 유려하고 진득한 구사를 통해, 민중들의 언어에 개념성



과 사상성을 부여해 역사의 전면에 당당히 복권 시장으로서 양어이암로 현대적 변혁에 풀살한 요소임을 가르쳐준다.

"그 양어신길이 들이닥침으로 시상 판세가 뒤께 절을까?"라고 쇠 자나 들어있는 지 주주들이 새 기운 얹어 되살아나고, 순사들 해죽은 죄지가 면접 알고 뻥거지게 도망질했던 늘덜이 도로 그 자리 차고 앉고, 그 공평하게 일 할 사람은 인민위원회를 공상단 뜻끼리판이라고 말이래 사람덜 꽂아들이고, 자네덜도 다

이는 이와 새 날이가 소리로 일일이 피장을 걸고 있다. 저리로 잘 폐기는 밤술일 알아본 것이 누구나 그것이여. 보니마나 그 암코배기 일 아니었드라고?" (태백산맥·본문 중에서)

'태백산맥'의 언어구사가 토속적이며 육설을 중요시하는데 비해 '장길산'은 한 차원에 역할되기도 보인다. 전국 각지의 민족, 전설, 무가, 민요 등의 구어문화, 각 지방의 풍속지리 등을 역사적 상상력과 결합시킨다. 특히 당대의 역사와 복권방법과 풍물, 지리, 민속 등이 통澈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길목한 육담과 민중언어의 사상성

둘째, 종래의 양반·지식인 계층의 언어가 아닌 민중언어의 구사가 뛰어난다. 특히 태백산맥은 그 문학적 성격을 갖춘 요인으로 전 리도 방언과 탁월한 구사가 꼽힐 정도다. 거

과 사상성을 부여해 역사의 전면에 당당히 복권 시장으로서 양어이암로 현대적 변혁에 풀살한 요소임을 가르쳐준다.

"그 양어신길이 들이닥침으로 시상 판세가 뒤께 절을까?"라고 쇠 자나 들어있는 지 주주들이 새 기운 얹어 되살아나고, 순사들 해죽은 죄지가 면접 알고 뻥거지게 도망질했던 늘덜이 도로 그 자리 차고 앉고, 그 공평하게 일 할 사람은 인민위원회를 공상단 뜻끼리판이라고 말이래 사람덜 꽂아들이고, 자네덜도 다

이는 이와 새 날이가 소리로 일일이 피장을 걸고 있다. 저리로 잘 폐기는 밤술일 알아본 것이 누구나 그것이여. 보니마나 그 암코배기 일 아니었드라고?" (태백산맥·본문 중에서)

'태백산맥'의 언어구사가 토속적이며 육설을 중요시하는데 비해 '장길산'은 한 차원에

하는 우리의 민족적 삶에 있어서는 더욱이 그려졌다. 역사의 그런 허위가 파괴되고, 역사가 '자각하는 민중의 소유'가 될 때 비로소 우리 민족의 '허리앗기'인 통일도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그 중간에 문학이 해야 할 몫이 있다고 확신하며, 나는 소리로써 그 일을 이루어보려고 유품을 부리고 것이다."

조경래씨가 '태백산맥' 2부에 출판하며 적은 글이다. 최근 소설이 급속도로 사회·여자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 그것도 개인의 후일담 혹은 추억담으로 이용하는 현실에서 실천적 행위에서 예술적인 형상화에 성공한 작품들은 반드시 대중들의 사랑을 받도록 되어야 한다. 시대가 변함수록 적자는 여러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대중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새로운 문제제기를 던져주어야 한다. 나는 소설이 안 읽힌다는 푸념과 동시에 산업사회와의 진단이다. 레저다. 상업주의 문화다. 기술이다. 하는 남에게 해내는 광계를 부끄럽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족 문학은 현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사람들과의 내면과 외자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다양하고 풍부해져야 할 것이다"

간이 필요했다는 말처럼 들린다. 민족적 형식과 내용은 다른 아닌 앞에서 인급했던 47지 특성으로 오묘할 수 있다. 물론 태백산맥과 장길산이 민족적 형식과 내용을 담아낸 완벽한 문학적 형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단정해 서도 안된다. 민족적 내용과 형식은 시대적 요구와 민족적 요구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본원칙이다.

"한강은 민족분단의 상징으로 '많은 강, 한스러운 강', 민족통일의 상징으로 '하나되어 이 흐르는 강' 민족통일성의 상징으로 한민족의 찾을이며 대동맥의 강', 통일민족의 미래 상징으로 '넓고 크게 한없이 흐르는 강' 이런 이미를 갖는다."

조경래씨가 대하소설 '한강'을 한겨레신문에 연재하여 밝힌 작기의 말이다. '태백산맥'과 '이리랑'이 분단이전과 시대를 담아내면 이제는 분단이다. 1950년부터 1992년까지 우리 민족이 한시가 33년간을 담아내겠다고 했다. 이제는 북녘땅도 소설의 무대다. 꿈寐없이 민족의 현실을 담아내고자 하는 자신의 노력이다. '태백산맥'과 '이리랑'은 어느 순간 갑자기 작기의 상상속에서 나온 산들이 아니라 위와 같은 평화한 역사의식과 형식과 내용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다. 활동영씨가 후배 작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말을 끝으로 글을 마친다. 민족문화의 형식과 내용은 진정 어떤 기준에서 고민되어야 하는지 제시해주리라 믿는다.

"이제부터 민족문화의 과도한 사회파학적 편향이나 상투성, 예술적으로 푸비한 것을 마치 민족문화의 퀘런처럼 생각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가치있는 비판이 필요하다. 작품들이 끝 되어 멎었다. 이것은 작자가 아직도 그가 다른 레전드를 따라 소화해내려는 증거이다. 시대가 변화에 따라 소설만 높은 것은 올바른 정직성과 대중성을 지기 안에서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현실에서 실천적 행위에서 예술적인 형상화에 성공한 작품들은 반드시 대중들의 사랑을 받도록 되어야 한다. 시대가 변함수록 적자는 여러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대중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새로운 문제제기를 던져주어야 한다. 나는 소설이 안 읽힌다는 푸념과 동시에 산업사회와의 진단이다. 레저다. 상업주의 문화다. 기술이다. 하는 남에게 해내는 광계를 부끄럽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족 문학은 현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사람들과의 내면과 외자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다양하고 풍부해져야 할 것이다"

김태형
(외대학보 전 문화부장)

28일, 순수함을 외쳐보세요

이론

외대가요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노천에 가득 모아진 우리의 열기가

외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일시 : 5월 28일 (목) 늦은 6시

장소 : 노천극장

초대가수 : 김장훈, 코끼리

심사위원 : 강현, 하규



외대교육방송국

왕산

예선

참가대상 : 서울·경기지역 대학생

참가곡 : 순수창작곡

마감일시 및 장소 : 5월 15일 (금) 어문관 207호

지첨을 : 악보 2매, 도장, 참가비 3천원

예선일시 및 장소 : 5월 16일(토) 늦은 1시 교양관 301호

본선

일시 : 5월 28일(목) 늦은 4시

장소 : 노천극장

초대가수 : 자우림

심사위원 : 신촌뮤직 관계자,

김낙현 주간교수, 예성호 실무국장

외대응인교육방송국

끝내 말못한 '금기와 성역'

조선일보, KBS에 압력…'이제는 말한다' 방영연기



KBS 특별제작팀은 '부당한 금기와 성역에 정면도전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이제는 말한다'를 제작했으나 언론재벌과 KBS 회사측의 입장에 부딪히고 말았다. 사진은 3단·광우대 학살 편집작업 모습.

96년 연세대 통일투쟁 이끈 전 서총련 의장 박병언군을 만나

"고민하는 일꾼들이 있어"

한총련의 희망을 봅니다"



자난 96년 8월, 연세대 통일 투쟁 당시 대한민국 언론에 가장 '화려한 주목을 받았던 사람중에 한명은 바로 96년 한총련 대변인과 서총련 의장을 맡았던 박병언(연세대 종합사회학)군이었다. 그가 96년 10월 연행 이후 군산 교도소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치르고 지난 5월 5일(화) 새벽 민기출소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알리고 싶었던 당시 예전에 비해 삶이 짜증 모집되었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무색한 듯 기자와의 인터뷰를 위해 지난 89(금) 외대를 찾았을 때 여전히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많았다. 아직도

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마침 인터뷰를 약속한 날이 '어버이 날'이라 김육에 있는 동아 고생이 많았을 가족, 특히 어머님 얘기를 물어보았다. 박군은 "어머니와 기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버이날 이전에 서면에서 네식구가 모두 모였다는 것 그 하루만으로 말입니다"라고 말한다. 박군이 김육에 있는 동안 박군의 어머니는 소위 '문종권'이 되었다. 어머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도대체 우리 아들이 무엇 때문에 예모를 뺐는지 알아보려 다니고, 그려

보이지 않는 조선일보 측의 입장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고 조선일보측의 발언이 있은 후 벌써 남부지방에서 우주의 통향을 살피고 있다"는 KBS노조의 한 관계자는 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조선일보'라는 하나의 언론체가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의 자율성이 최우주하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침

묵은 김대중 정권의 '민주성'과 '개혁'

성'의 차이를 두고 있는지

이제는 이해해보았던 진실을 찾

내내였다는 취지로 만들고자 이번 프

로그램 방송을 저지하는 곳은 물론

KBS 회사측이다. 하지만 이번에 조선

일보의 힘을 살피었으므로 판단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이제

물증을 가지고 감지한 것은 아니지만

단호하다. '어린 식으로의 입장은

그로 인해 내용이 수정된다면 '금기와

성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우리의 기

분위기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존속 이유 자체를 막아

한 차시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특

별제작팀측의 생각이다.

권력의 시너노릇을 하는 방송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특별제작팀의

팀장 김경수 PD는 "그동안의 방송은

소수의 기획을 위한 방송이었으며

그들이 의해 차지되 되는 방송이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그들이 의해 차지되 되는 방송이었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맞서는 특별제작팀의 입장은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재벌의 위

치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경수 PD는 "김대중 정부로 진

정한 국민의 정부는 아닌 모양"이라며

불안한 토큰은 소위 '국민정부'의

한계와

불심검문, 법대로 하라

검문절차 위반, 공권력 남용, 무차별 검문 등…인권침해

최근 공권력의 불심검문에 대한 '불법'는 란이 불거지면서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과 사회단체,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심검문'에 대한 반대운동이 넓리 퍼져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지난해 7월 '불심검문 불복종문'워크숍을 개최해 이어 15일과 17일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문'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5월 16일에는 서울 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정병도)에 7월 20일 불법 검문이 행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경찰관으로 연행하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인권유린적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집회가 있을 경우 학생은 더 심하게 나니라는 이유로 4월 30일 동대문 주변에 있던 한 여학생은 불심검문을 거부하다 경찰서로 강제연행 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이영현은 '불심검문은 거부운동을 담당하는' 불법 검문 자체로 폭력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우리한테 권력을 가지 고 있는 공권력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 적으로 자행하는 불심검문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외대의 진정한 무엇인가 ② 관선이사 파견 사례로 본 외대발전 방향

'민주적' 관선이사 아니면 소용없다

교육부, 관선이사 선임 기준 없어, 외대발전보장 못해



우리나라 대학은 학교의 전당. 상이집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재단 이사회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재단이사진 송인 쇠' 중심 내용으로 한 우리학교 재단사태에 대한 특별사과 걸기를 발표했다. 김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이사진의 송인취소로 교육부에서 직접 일행하는 이사가 우리학교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수없이 저질러왔던 재단이사진의 부정비리를 일에는 좋은 계기이긴 하지만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관선이사제' 역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덕성대학, 삼지대 등 그동안 관선이사가 학교경영을 하고 있는 대학의 공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서 이후 우리학교 정기발전을 위한 투경방안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덕성여대

재단 이사장의 지나친 학사간섭에 의해 '한상관 교수'를 해임한 상지대 교수·학생들의 요구에 그에 수임용 탈락 사건으로 시작된 덕성여대 사태는 교수와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계속되면서 교육부 설득에 의한 재단측의 이사진 전면 교체 조치로 관선이사 파견이 되면서 경상화 되는 듯 했다.

학교법인 덕성여대(전 이사장 박원국)은 당시 이사 회를 열고 4명의 이사 가운데 외방중인 박원영 이사를 제외한 이사 3명의 시표를 받고 김계수씨(전 우리대학교 대학원장)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한상관 교수의 재임용 탈락으로 불거진 대성여대 사태에서도 새 이사진이 구성된 지 4개월이 흘렀으나 아직까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덕성여대 교수·학생들과 여려 시민단체들은

'비례결의의 의지' 없는 김계수와 한상관이사에게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하고 있다.

또 덕성여대 이강학 신임총장(전 우리학교 총장) 역시 한상관 교수의 복직을 하려는 학생과 교수를 선별하고 월급 포기 쪽으로 쓰게 하기, 등록금으로 망상화하고 공금유용하기 등 세형 교육부 안내로 김문기 학생과 들의 비호 아래 저질러 오다가 93년 재산공개 때 들어난 것이다.

상지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상지대는 수십년 동안 재단과 교육부 관리들의 믿음으로 사랑해온 대학이 되었던 곳이다. 재단이사장이었던 전 민자당 국회의원 김문기씨가 돈을 받고 학생과 교수를 선별하고 월급 포기 쪽으로 쓰게 하기, 등록금으로 망상화하고 공금유용하기 등 세형 교육부 안내로 김문기 학생과 들의 비호 아래 저질러 오다가 93년 재산공개 때 들어난 것이다.

김문기가 구속되고 교수들의 주대로 소위 '민주적인' 김천국 총장이 부임해 인정을 찾기 시작하는 계기로 8·15 특사로 김씨가 폴리리처너마저 김천국 총장을 격려해입법으로서 다시 혼란에 휩싸였다. 이는 김문기가 총장해임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지난 6·27전거 때 상지대를 도립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던 것도 김문기 대재판에 회포였으려는 음모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한달 넘게 풀린 상지대 김천국 총장 해임사태에 대해 '절차상 문제 없다'던 교육부는 상지대 교수·학생들의 요구에 그에 대해 김원주(민들의 개정 요구에 의해 청와대에 있었음)를 인정하고 관선이사 명예 전원교체를 결정했다.

이 문제의 종결이 '관선이사 전원교체'로 끝나지 않았다면 교육부가 발행한 관선이사회가 학원규정을 가중시켰을 당시 교육부 장관이 시인하여, 관선이사 선정에 따라 상지대 재단집과 교육부부의 유착관계도 밝혀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관선이사 문제점①

관선이사 선임의 기준이 없다

관선이사 선임의 기준이 없다

관선이사 회장을 찾았을 때는 그 보다 더 빠른 시일에 재단을 다시 차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관선이사가 파견된다 해도 외대발전의 장·상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재단이사진 전원교체와 관선이사 파견이 했을 경우 경기·경기·경기·경우에 있는 재단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학교에서 재단과 함께 하는 단체를 하기도 하고, 학부에는 재단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다.

위의 덕성여대 예를 통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관선이사와 관선이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외인에게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민주적 총장이 들어갔을 경우, 총장에

간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경우, 총장에

</

